

第 8 次 司書職實務者세미나 發表要旨 (拔萃)

도 서 관 상 호 협 려

-- 협동 수서를 중심으로

변 정 숙 (부산대)

- | | |
|-------------------|------------------|
| I. 협동수서의 필요성 | IV. 협동수서의 문제점 사례 |
| II. 협동수서의 조직체의 유형 | V. 협동수서의 문제점 |
| III. 협동수서의 종류 | VI. 결 론 |

1. 협동수서의 필요성

“협동수서”란 자료의 선택 및 장서확충의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의 한 방안으로서, 도서관들의 공동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여러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개인이 탐색하고자 하는 자료는 반드시 당관에 소장되어 있기만을 요구하고 도서관마저도 이러한 자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여 독자적인 자급자족만을 목표로 운영되어져 왔던 것이다. 또한 도서관의 봉사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이 일년에 한번을 찾더라도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하고 이용도는 낮아도 이용자만족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도서관의 소장자료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도서관이 자체적인 자료를 소유하기 보다는 보다 많

은 자료에의 접근과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도서관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공동이용을 들 수 있다.

예산은 빈약하고 필요로 하는 자료는 많은 우리의 실정에서 수서상의 협력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구입업무를 협동화하게 되면 각 도서관마다 불필요한 자료의 중복된 수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이용자들을 더 많은 자료에 접근시킬 수 있는 큰 목적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II. 협동수서 조직체의 유형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하여 활동적인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다. “협력조직” 이란 용어는 도서관 조직망 (Library Networks) 과 도서관 협력체제 (Library Cooperatives) 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라는 현대과학기술의 설비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기는 하지만 조직망이나 협력체제나 모두 하나의 도서관 협력 조직으로서 그 철학이나 목표는 근본적으로 같다. 협력의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유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 (1) 도서관의 관종별 조직 (대학도서관, 특수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등)
- (2) 주제분야간의 조직 (과학·기술분야·의학분야·농수산 등)
- (3) 인접 지역내의 조직 (지역별)
- (4) 도서관과 타기관과의 조직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궁극적으로 전국적 세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목표이나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전체를 논하기 보다는 현재의 여건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면서 점차로 확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다.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타의에 의한 강제적인 형태로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사립이나 국립대학의 도서관이나 설립요건의 문제보다 자원의 규모가 비슷한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 방법으로 지역적인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조건이 맞는 도서관끼리 모여 아주쉬운 일부터 협력함이 성공가능성이 높다.

“Kraus”는 협력체의 성공적인 실현조건으로서

- ① 협력에 참가하는 각 기관이 협력에 대한 근본이념에 일치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관 각자가 단독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협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점에 확신이 서야 한다.
- ③ 참가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의외 외부의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의 응용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⑤ 계속적인 운영을 하려면 정식운영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Ⅲ. 협동수서의 종류

협동수서의 종류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1. 분담수집

자료구입에 있어서의 분담수집이란 협력체체가 수립된 도서관 간에 자료의 주제·형태·시대·언어와 같은 특정분야별로 수집을 분담하는 구입방법으로 협력관끼리 장서구성을 특성화하여 상호공동으로 이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분담수집은 자료의 상호이용을 전체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호이용의 협력체체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담수집의 의의를 실현하기 곤란하여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분담수집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이용 빈도가 낮은 주제전문도서나 고가의 외국학술문헌등을 들수 있고, 각 대학의 특성 및 현존 장서의 규모와 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까지 고려하여 수집대상 자료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학생용의 일반 교양도서나 지정도서 아주 기초적인 전문서적 및 참고도서등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자료는 그 도서관으로서 자체수집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담수집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대상자료를 선정키 위한 기본자료도 협력관간의 종합목록이나 개개 도서관의 장서목록을 필요로 한다.

분담수집에 의한 문헌과 자료들은 그 수집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배포하여 가능하면 종합목록으로 간행되어야 하고 수집된 문헌의 그 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와야 할 것이다. 분담수집의 단점으로는 그 도서관에 별로 필요하지 않는 자료라도 할당된 주제에 관해서는 수집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과 자료가 분산됨으로 자료탐색시신속성의 문제와 불편함이 따르고 각 도서관의 기본적인 자료의 중복구입을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2. 공동구입

공동구입의 방법은 협력관간의 자료를 공동으로 선정, 구입하여 공동으로 보관 이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공동구입시는 협력도서관간의 실무적인 충분한 의견조정이 필요한데 즉 ① 공동이용방법 ② 구입절차 ③ 구입계획 ④ 공동구입의 중점 분야에 관한 합의 ⑤ 보관계획 등이다.

예컨대 원거리 이용을 위하여 신속한 복사서비스의 체제를 만든다거나 공동으로 구입할 분야를 일반 도서류 보다는 복사서비스를 통하여 상호대차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학술잡지류를 구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다.

공동구입의 방식의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도서관에서 소요된 대출봉사의 비용을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전국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속에 국립도서관을 참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동구입된 자료의 보관을 특정도서관에 집

중 보관하거나 몇개 도서관이 나누어 분산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국립기관의 도서관인 경우는 물품관리법이나 예산회계법상의 제약에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공동구입의 방법에 의한 이용자의 자료 만족도는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3. 중앙 집중식 구입

국가나 어느 특정기관등 자료 구입을 전담하는 기구를 통하여 전체주제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주문과 수서를 용이하게 해 주는 방법이다.

그 전담기관이 이용시킬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로서는 타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며, 망라적인 자료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중복 및 불용자료의 활용

각 (대학) 도서관들은 국내외의 도서관 및 학술단체등과의 교환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는 도서관의 장서수입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자료의 활용방법으로 학술잡지의 복본교환 및 미등록된 소장자료중 불용자료나 중복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교환 혹은 기증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이나 관계법규상의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협력의 방안으로써 자관에 없는 자료 (귀중본, 희귀본, 학술잡지 등) 를 복사한 다음 상호교환하여 비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문제점으로는 ① 복사와 저작권 문제 ② 희귀자료의 무단 복제 배포 행위 ③ 복사요금의 징수문제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IV. 협동수서의 사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실행된 도서관 협력을 보면 1967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및 상호대차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초보적이기는 하나 협력체제가 구성 운영되어 오고 있다. 서울 홍릉과 대덕 과학단지 내 도서관간의 협력체제와 서울 신촌지역 (연세, 이화, 서강대) 3개대학 도서관간의 협력체제 및 전국의학 도서관간과 신학 도서관간의 협력체제등이 그것이다.

일부 협력체제 내에서 “협동수서”가 활동범위로 채택은 되었으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해결의 난점으로 인해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고 소극적인 상호대차나 협력체제간의 종합증표를 발행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의도적인 협동수서와는 그 의미에 있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협동수서의 예로는 국제기관의 출판물에 관한 국내의 몇몇 기타도서관을 들 수 있는데 ① 유엔 자료는 고려대학의 유엔기탁도서관실과 국회도서관 ② 유네스코 출판물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도서관실 ③ 국제식량 농업기구 출판물은 FAO한국협회의 자료실 등이 있다.

이런 도서관은 상호계획된 협력수집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분담수집을 행하였고 어느정도공동이용이 가능하다는점에서 협동수서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외국의 협동 수서에 관한 사례로는 첫째, Farmington Plan을 들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수서분담 협력조직의 대표적인 것으로 1948년 2차 대전 이후의 재정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에 가치있는 외국자료를 미국내에 적어도 한 곳에는 확보한다는 계획아래 대학 또는 연구도서관들 사이에 수집되었다.

수집 후 미국의 의회도서관에 보고되어 국가종합목록에 수록 됨으로써 상호 대차 또는 복사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진 협동자료 구입 계획이다.

초기에는 프랑스·스웨덴·스위스 등 유럽 3개국의 출판물에 대한 공동구입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여 주제별 전분야에 걸쳐 망라하여 수집하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와 큰 대학 도서관이 자기 도서관의 포괄적인 장서 수집계획을 세움에 따라 빠져나가고 또 의회 도서관에서의 대규모 수집계획인 NAPA가 결실됨에 따라 1972년 말에 해소되고 말았다. 이 계획의 기본적인 중요업적은 도서관 수서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자료의 구입을 추진시킴으로써 관련된 도서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합자원을 증대한 점과 책임분담에 있어 주제전문의 원칙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킨 점이다.

둘째, 영국 공공도서관이 자료증대를 위해 행한 분담 수서 계획을 들 수 있다.

이는 한 지역내에 속하는 공공도서관들에게 Dewey 분류표의 한 항목을 할당하여 그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로서 영국 국내 서지에 기록된 것은 모두 구입하도록 하여 한 지역내에서는 상호대차를 통하여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셋째, 미국의 Public Law 480 (1954) 은 잉여 농산물의 판매로 획득한 외화로 판매지역 (인도, 파키스탄, 아랍공화국등) 의 출판물을 구입하여 미국의 연구 도서관들의 주문에 응하는 중앙집중식 수서의 계획으로 미국 의회도서관이 그 구매 및 분배를 전담해 왔다.

넷째, 1965년 미국 의회의 인준을 얻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으로 미국 의회 도서관이 연구 도서관에 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화 된 「수서 및 목록을 위한 국가계획 (NPAC : 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s and Cataloging)」 이 있다. 이 계획은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 의회도서관으로 하여금 세계에 많은 판매조직을 갖고 전국 서지를 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전 세계적으로 출판되는 자료중 학문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구입과 구입된 자료의 목록

작성 및 서지적 정보의 분배에 관한 임무를 행하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중앙집중식 구입 및 목록 작성계획이다. 이계획을 대행하는 미국 의회 도서관은 외국 국가 서지나 혹은 중앙 도서관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또는 1966년 London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도시에 개설된 L·C사무소를 통해서 새로 출판되는 자료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미국내의 여러 도서관을 이 계획에 참여 시킴으로서 자료의 선정과 구입을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해 준다.

다섯째,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4국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진 협동수서의 예가 있다. 독일에서 전쟁 후 거의 모든 도서관이 장서를 잃어 25개 주요 도서관들이 주제분야의 분담식 협동 수서를 행하여 제한된도서 구입비로 중복수입을 최소화하고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나누어 읽게 하였다. 스칸디나비아 4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각각 독자적으로 전 세계 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네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특성이 비슷하여 각 주제분야를 분담한 하나의 포괄적인 장서를 이 지역에 구성하자는 목표를 세워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플랜”을 계획 운영하고 있다.

V. 협동수서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협동수서의 본래의 의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몇몇 계획을 제외하고는 성공한 예가 매우 적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자료구입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몇가지 원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도서관은 자체의 수집정책과 이용자 요구에만 충실하고 중요한 자료라면 모두 수집 소유하려고 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도서관봉사에 대하여는 외면하여 왔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둘째, 수서상의 상호협력에서 협력관 상호간의 불균형적인 이해관계가그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대도서관과 소도서관의 도서 구입비의 다소에 관

한 차이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상호협력의 대의를 위해 서로 양해함으로써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자원의 분담과 공동이용이라는 개념에서 서로간의 불균형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상호협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남에게서 얻는 것이므로 결국 자기가 상대방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것이다.

즉 각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교환함으로써 전체 자료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어느 한 쪽의 불균형으로 인해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다면 운영은 불가능하게 된다.

넷째, 도서관 이용자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 자료는 반드시 자관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도서관 협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그로 인한 마찰이다.

다섯째, 공동이용시 자료의 탐색을 위한 수속절차의 번거로움, 거리로 인한 불편 및 신속성이 적다는 점, 또한 협력관의 협조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용자의 노력과 시간 및 소요경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여섯째, 특히 국립기관은 물품관리법이나 예산 회계법 상의 제약에 문제가 따른다는 점이다.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점이 수서상에 있어서의 구입협력이 실행되어 오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VI. 결 론

이상으로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특히 자료 구입에 관한 협력문제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과 협력의 사례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 중 최대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상호협력” 특히 자료 구입에 관한 협동수서의 계획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시행되기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현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씩이나마 개선하고 협력에로의 증진

을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국가 및 도서관협회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고 협력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 (2)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대 도서관의 희생정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 (3) 도서관인들 스스로가 협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 및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하여 도서관 상호협력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주지 시킨다.

(5) 마지막으로 상호 협력에 관한 현재 우리 도서관인들의 과제이며 협력에의 접근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은 우선 인접한 지역내의 도서관들이라도 각기 협력활동의 대상을 서로 모색하고 단순한 협력을 위한 것이라도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그 제의를 받아들일 자세를 실행에 옮길 일만이 남았을 뿐이다.